

## “위험하고 논쟁을 부르는 결말... ‘마약왕’의 히든카드”

믿고 보는 ‘1억 관객’ 배우 **송강호**

배우에겐 저마다 다양한 수식어가 따른다. 송강호(51)도 마찬가지다. 티켓파워를 논할 때 첫 손에 꼽히는 배우란 사실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여러 배우가 있지만 송강호는 늘 가장 먼저 언급된다. 관객 기대치에 부합하고, 때때로 그 이상을 해내며 얻은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의미다. 그런 송강호가 조금 낯선 모습으로 관객 앞에 나선다. ‘마약왕’(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이 새로운 무대다. 최근 다양한 이야기와 인물을 담아낸 시대극에 주력해왔고, 대부분 실존인물을 구현하는 데 집중한 그가 자신의 방향을 지키면서도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 일단 반갑다.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마약 밀매로 부를 축적한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송강호를 통해 완성됐다.



배우 송강호는 영화 ‘마약왕’ 출연을 결정하는 데 마약이란 소재에 멈칫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우로서 호기심과 스토리의 매력”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답게 관객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받는 그는 “늘 부담을 느끼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사진제공 | 쇼박스

마약이란 소재 낯설지만 묘한 매력  
욕망과 광기...이런 모습 처음 선보  
관객들로부터 논쟁이 많이 됐으면

**송강호**  
▲1967년 1월17일생 ▲1991년 극단 연우무대 활동 ‘동승’으로 데뷔 ▲1996년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스크린 데뷔 ▲2000년 ‘반칙왕’ 주연, ‘JSA 공동경비구역’으로 대중상 남우주연상 ▲2003년 ‘살인의 추억’ ▲2006년 ‘괴물’부터 2013년 ‘변호인’, 2017년 ‘택시운전사’까지 각각 1000만 돌파 ▲내년 ‘나랏말싸미’ ‘기생충’ 개봉

개봉을 이틀 앞두고 만난 송강호는 “마약이란 소재가 낯설고 두려웠지만 한편으론 배우로서 호기심과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비록 가공의 인물이지만 “실제 벌어진 사건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인물이기에 현실감을 갖춘 점 역시 좋았다”고도 했다. 참여한 작품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배우의 숙명이지만 송강호는 “신나서 했고, 만족스럽게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 ●“인간이란 존재, 나약할 수밖에 없다”

송강호가 부산에서 ‘택시운전사’를 촬영하던 때 ‘마약왕’의 우민호 감독이 그를 찾아왔다. 시나리오를 건네기 위해서였다. 마침 송강호는 감독의 앞선 영화인 ‘내부자들’을 보고 “편집과 서사의 간결함, 그러면서도 힘이 넘치는 캐릭터”가 펍 마음에 들던 참이었다. 그렇게 의기투합했다.

영화는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밀수업자인 이두삼(송강호)이 마약 밀매를 통해 거물로 성장하면서 드러내는 욕망과 집착 그리고 파멸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는 “굴곡진 인생의 한 남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과정을 인간의 본질에 맞춰 그려려 했다”고 말했다.

송강호는 영화에서 권력보다 소시민 혹은 힘을 지녔어도 약자나 정의에 시선을 둔 인물을 주로 그려왔다. 그에게 ‘마약왕’ 참여는 변화의 시도였다. 특히 마약의 늪에 빠져드는 영화 후반부, 그가 보이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연기 자체로는 ‘역시’라는 반응을 이끌어낸다. 송강호가 내심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반부에는 ‘초록물고기’나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에서 보인 유쾌함을 만날 수 있다가 후반부에선 지금껏 드러낸 적 없는 또 다른 면을 보인다. 관객조차 ‘저런 모습은 처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송강호는 영화 후반 ‘모노드라마’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극도의 갈등과 불안을 홀로 그려낸다. 지극히 연극적인 표현을 두고 그는 “상업영화 안에서 펼친 도전적 시도”라고 했다.

“위험한 요소이지만 비장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영화 결말을 두고 분명 호불호가 나날 거다. 관객에 익숙하지 않은 구조이기에, 재미있다, 없다, 좋다, 싫다의 차원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논쟁이 되길 바란다.”

### ●“책임감 크지만 결과는 겸허히”

이달 개봉하는 영화가 여러 편이지만 초반 분위기는 ‘마약왕’으로 쏠린다. 관심이 증폭되는 근원은 ‘기·승·전’ 송강호에 있다. 그가 영화를 통해 세상에 내놓는 이야기나 인물이 대부분 관객을 만족시켜온 덕분이다. 그렇게 쌓은 신뢰도 상당하다. 기대가 높은 만큼 부담도 크지만 그렇다고 제자리에 서 있을 순 없다.

“늘 부담을 느끼지만 그런 것들이 작품 활동의 방향성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마약왕’도 결과를 떠나 관객에게 나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결과?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작품을 선택할 때 흔히 말하듯, 이념에 의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굳이 이런 말을 꺼낸 이유가 궁금하던 찰라, 송강호는 말을 이어갔다.

“아무래도 ‘변호인’과 ‘택시운전사’ 이후에 그런 말씀(이념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평가나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다만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나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정확히 알고 싶은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영화를 추구한다. 그런 욕심을 끝까지 유지할 거다.”

어릴 땐 권투선수를 꿈꾸고 경찰관도 상상해왔다는 송강호는 “연극을 시작한 뒤에는 다른 쪽으로 눈 돌린 적 없다”고 했다.

“좋은 연기? 글썄. 그런 기준이 문법화 돼 있진 않고, 관객이 영화를 보고 느끼는 기준도 전부 다르지 않다. 배우 자신이 얼마만큼 솔직하게 느낌을 연기에 투영하느냐에 (좋은 연기가)달려있지 않을까. 배우의 진심이 투영되는 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현재 영화 ‘나랏말싸미’ 촬영에 한창인 그는 얼마 전 봉준호 감독의 작품 ‘기생충’도 마쳤다. 촬영하고, 끝나면 또 촬영하는 일상의 반복이다. 촬영이 없을 때 대체 송강호는 뭘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한 것도 사실.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탕한 웃음을 터트린 그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영화 개봉을 앞둔 지금 같은 시간이 나에겐 절정의 순간이다. 연기하는 과정 자체가 그리 달달한 것만은 아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역시 좋은 작품,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협업이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르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 나이가 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안이다라는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무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데 문이면 누구나 다 된다는 식으로 포기하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실건가요?  
우선 나이가 어려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야 하고 노화현상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서남해안항철협동조합과 주에이스제약과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항철크림은 황철나무 추출액을 함유한 주름개선, 피부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굴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큰 차이가 나게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찰라트 흐르는 탱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이런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고와지면 팬시리 외출하고 싶어진다~

나이보다 젊어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귀하신 분들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세트: 장보고 항철크림 2개 + 항철미용베누 1개(사은품)  
\*제조원: 주에이스제약  
\*용량: 70g/개

피부가 고우면 자나가는 사람들이 한번더 쳐다본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항철크림 1600-2865

## 휴대용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 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매사 외출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생동안 많은 시간을 서서 생활하므로 체중이 아래로 집중되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특히 비만인 경우에, 다리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무릎에 대사가 나빠지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체중조절이 중요하

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릎팩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5가지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원적외선 파장과 음이온이 방출되는 무릎팩엔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릎팩엔에는 5가지 광물(셀라이트, 그라파이트, 토르말린, 쿼츠,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뭇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무료체험 환불보장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릎팩엔  
1670-5467

※전국 시군구 소재본 무점포 대리점 모집